



완주군,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한 역량강화 교육

완주군이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12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13개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역량강화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참여형 교육과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복지계획 실행력을 높이고, 마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복지계획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철진 교수(광신대학교)의 강의로 ▲마을복지계획의 개념과 사례 공유 ▲마을조사와 의제도출 방법 ▲마을 계획 수립 실행 방법과 기술 등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됐다. /원주=이종복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펼쳐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13일 무주읍 대치리 서면마을 일원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농촌환경을 깨끗이 가꾸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주농협 농가주무모임(회장 한보임) 회원들과 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주변과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영석 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여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이산묘봉찬회, 대제 봉행

대한이산묘봉찬회(이사장 이병기)는 12일 지역 유림과 후손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된 가운데, 종현관, 아현관을 제외한 초현관 만으로 봉행했다. 이산묘는 임귀 4위를 배향한 회덕전과 조선의 명현 4위를 배향한 영모사, 한말 의사, 열사, 우곡지사 34위를 배향한 영광사가 있으며, 각 전각에서 안한수 전 진안노인회장, 정상식 마령면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이 초현관으로 참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산불·우크라이나 전쟁피해 도움 되길”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대한적십자사에 각각 100만원 성금 전달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회장 권명식)는 지난 11일 강원도 산불피해 및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지원 등을 위해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각각 10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3개 읍면의 부안군 새마을지도자 임원들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강원도 삼척지역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많은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위기상황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금액이다. 권명식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주위의 이웃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 밤을 한 밤을 의 불발음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오늘의 나눔이 보



다 나은 공동체를 조성하는 기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 공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공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천만영, 정민성, 이하 협의체)는 12일 공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4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취약계층 식품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마을복지계획 추진 등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외부활동에 제약받은 독거노인 세대를 선정하여 식품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민성 민간위원장은 "올해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공덕면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진봉면 복지기동대·의용소방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김제시 진봉면 복지기동대(대장 김양곤)와 의용소방대(대장 장환근·최복기)는 12일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27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활동은 작년 연말 의용소방대에서 기탁한 성금 100만원을 활용하였으며, 마을이장·복지기동대·의용소방대·맞춤형복지팀에서 평소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세대를 파악 및 선정하고 함께 봉사를 펼쳐 '주민',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의 협력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다. 이날 대원들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는 물론 사용법 및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환근 부대장은 "의용소방대 대장으로도 활동하면서 복지기동대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선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12일, 2층 회의실에서 남원지역 치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생활안전과장 주재로, 각 계장 및 중앙지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하정동 소재 골목길에서 잇따른 청소년 흡연 등 비행신고에 대한 하북길 청소년 지도 활동과 상습 비행장소에 대한 환경개선 등 기능별 협업 방안이 논의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신청 안내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로 인한 종전 종사자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6월 9일까지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

사·기능사) 또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신규 종사자는 종사 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종사자는 올해 6월 9일까지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만약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거점 및 운반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안내 문구 전광판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서, 교통사고 예방 위한 원격 무선방송 송출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행락철 및 농번기를 맞이하여 전동킥보드, 이륜차, 농기계, 화물차량의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홍보가 어려움이 있어 남원시청과 협조하여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원격 무선방송을 송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방송내용은 이륜차, 전동킥보드 안전모 필수 착용,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화물차 과속 및 교통법규 준수, 보행자는 서다·보다·걸다의 안전 보행 3원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킥보드,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증상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4월부터 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고, 매주 시내권·시외권 구분 없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진행, 음주운전 절대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순창지사 256-2404 송천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사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호신지사 010-8645-9935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령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